

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석유·가스

◆ 헝가리 MOL 그룹-튀르키예 석유공사 탄화수소 협력 MOU 체결(주헝가리대사관)

- 헝가리 석유가스 기업 MOL Group社와 튀르키예 석유공사(Turkish Petroleum Corporation)는 10.16(수)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탄화수소 탐사 관련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함.
 - 양측은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튀르키예, 북아프리카, 중동, 동유럽 등 지역에서의 가스전 탐사 및 개발, 가스 생산 프로젝트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, 수반되는 예산도 함께 부담할 예정
- MOL의 Zsolt Hernadi 대표는 석유가스 탐사를 위한 금번 파트너십 체결은 국제적인 포트폴리오 확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며, 중동부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경쟁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.
 - MOL과 튀르키예 석유공사는 아제르바이잔의 ACG(Azeri-Chirag-Deepwater Gunashli) 유전 및 러시아 Baitugan 유전의 탄화수소 탐사 및 생산 프로젝트에서 합작 투자파트너로 기협력하고 있으며, 양측은 금번 MOU 체결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

신재생에너지

◆ 아제르바이잔, 그린에너지 70% 이상 수출할 계획(주아제르바이잔대사관)

- 샤푸라프 아제르바이잔 에너지장관은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'풍력에너지 함부르크 컨퍼런스(Wind Energy Hamburg Conference)'(9.24) 참석 계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2027년까지 설치 용량의 33%를 재생가능에너지로 확대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, 향후 6년 동안 생산될 7GW의 그린에너지 중 70% 이상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함.
 - 동인은 카스피해의 풍력에너지 잠재력을 기반으로 △그린 수소 △그린 암모니아 △그린에너지 회랑 등의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
 - 또한, 발전망에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 및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. 끝.